

세계화시대의 지역만들기

Building Regio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인천시민의 일본 탐방기

류재경 / 비전건축사사무소
by Ryu Jae-Kyoung

인천시의 자매도시간 교류의 일환으로 일본의 기타규슈와 후쿠오카, 삿포로, 나가사키 일대를 지난 1월 19일부터 5일간의 여정으로 테마여행을 다녀왔다. 탐방단은 인천의 시민단체, 교사, 학생, 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12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일본방문은 지방자치시대의 시민모임 활성화와 다양한 직업을 가진 각계 각종 사람들의 눈을 통해 자신과 인천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정보 및 인식공유의 계기가 되었다. <필자주>

살기 좋은 도시 -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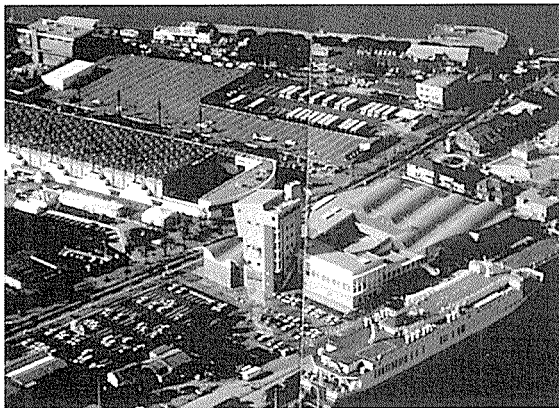
기타규슈시는 우리 예상과는 달리 그렇게 화려하거나, 계획적이지 않았다.

공장과 주택가, 상가, 호텔이 혼재해 있었고 거리의 인적은 드물었으며 단번에 오래된 공업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흡사 기타규슈는 인천의 구도심 공업지역인 인천항에서 하인천역을 거쳐 대우중공업, 이천전기, 인천제철을 잇는 거리풍경을 연상케 했다.

기타규슈는 미국의 버지니아주(1959년에 자매결연)와 중국의 대련시(1979년에 자매결연)에 이어 인천과 1988년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로 과거에는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무척 몸살을 앓았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인구가 1백만명이나 되는 일본의 공업도시이다.

그러나 최근 이 도시는 시와 시민이 함께 하는 「My Town, My river murasaking awa」사업으로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에 성과를 거두어 최근 일본에서 「제일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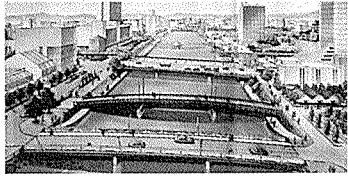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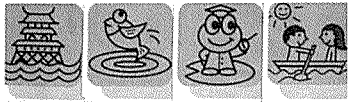
MM사업은 하천정비사업으로 2005년까지 계속된다고 한다. 강 주변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려내고, 강폭을 넓혀 홍수를 대비하고 강을 이용한 운송수단의 원활함을 위한 삼중효과를 노린 계획이었다. 실제로 강을 따라 늘어선 공장들, 주택가들은 신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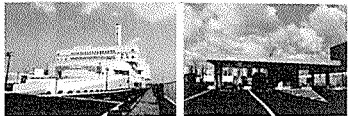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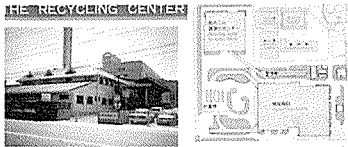
기타규슈시 「국제회의장」



기타규슈시청사



MM사업계획 개념



기타규슈의 「환경공장」

가 아니지만 질서와 여유가 있다.

보트가 시내까지 왕래하는 모습은 부럽기까지 하였다. 시민들의 소수의견을 성실히 수렴하기 위해 어린이사생대회까지 열어 그 의미를 다졌다는 총괄적인 경영마인드는 난국타개의 지름길을 인간중심에서 찾았다고 볼 수 있다.

도시의 관광상품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스페이스 월드」는 규슈지방의 최대 우주 테마파크로 일본 최대 제철소인 신일본제철소가 지역주민에게 공해로 인해 환경을 파괴한 회사의 행위를 사죄한다는 의미로 공장터를 테마파크로 조성하여 시에 헌납한 곳이라고 한다.

우리의 경우 고층아파트의 콘크리트 숲으로 변하는 무거운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기업의 책임성을 잘 보여준 곳이었다.

히야가리 환경공장 견학은 우리 방문단으로 하여금 기타규슈시의 환경정책과 자원재활용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해주었다. 시에서 각종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재활용 및 재생활을 만들고 여기서 발생하는 폐열조차도 전기회사에 판매하여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적 경영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인간·자원·환경」을 동시에 생각하는 도시개발 정책에 힘입어 1990년 일본의 단체로는 처음 국제연합 환경계획(UNEP)으로부터 「글로벌 500」을 수상하였다고 한다.

그라버 공원은 일본의 근대화에 지대한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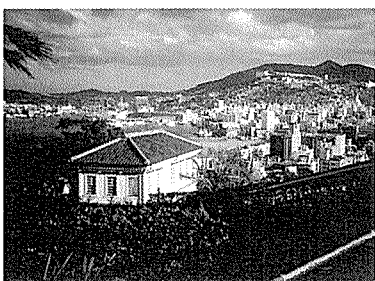
을 했다는 영국 상인 그라버의 저택을 중심으로 영국 무역상들의 저택, 외교구락부 등을 국가가 중요문화재로 지정한 곳으로 인천항이 바다로 보이는 자유공원과 비슷한 분위기를 연상케 했다. 산재되어 있는 외국문화를 서양인들보다 더 잘 보수 유지하여 본산지 사람들조차 관광을 오게하는 관광구매력을 창출해 내는 그들의 뛰어난 능력은 일본이 관광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단면이며 우리 인천의 관광산업에 일정부조언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테마도시—어떻게 도시화 시킬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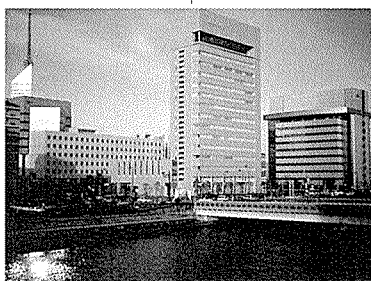
일본인들이 국내 여행지중 가장 가보고 싶은 곳중에 하나가 「하우스텐보스」라고 한다. 우리는 네덜란드보다 더 네덜란드적이라는 이곳을 관광하게 되었다. 하우스텐보스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테마도시」로 네덜란드의 도시건설을 참고로 하여 새로운 도시의 참 모습을 제안하기 위해 탄생시킨 곳이라고 한다.

야구장의 30배이상 되는 광대한 면적의 활용도가 낮은 향만에 17세기 네덜란드거리와 건물군을 건축한 현대식 워터 프론트 관광단지인 HUIS TEN BOSCH는 우리도 시급히 조성해야할 시급한 모델이라 생각되었다. 새로운 도시의 참모습을 제안하기 위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10개의 테마로 분류, 도시화하였다는 의도는 관심을 끌지 못하는 변두리의 자연경관을 적절히, 그것도 일본의 무역과 관계가 깊은 네덜란드를 일본으로 옮겨놓아 교육적, 관광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한 사례라고 평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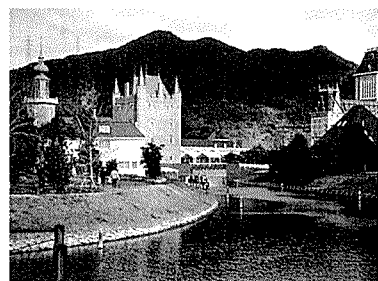
입지적인 물의 흐름을 고려한 수로의 계획과 웅벽에 달라붙어 있는 굴뚝질의 모습은 자연에 흠뻑 취하게 하는 부분이며, 유럽풍의 배를 타고 수로를 따라 왓세나 별장촌을 지나면서 도시 건물사이로 접어들게 한 관광코스는 그야말로 부러움을 사고도 남을 정도로 여운이 남는 코스였다. 매점에서 구입한 야경의 포스터는 꿈의 도시라고 할 만큼 매력적으로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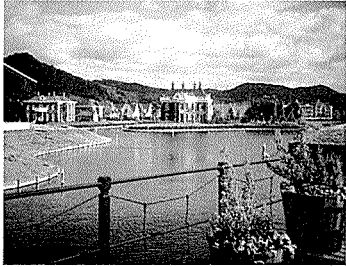
나가사키의 「그라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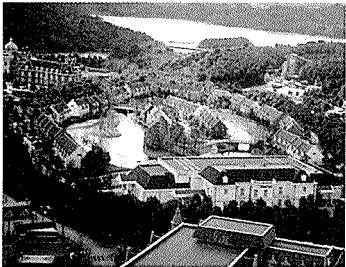
후쿠오카의 수변가 고층건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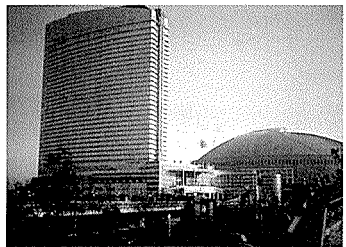
하우스텐보스의 입국장



하우스텐보스의 고급주택가



하우스텐보스의 별장촌



후쿠오카의 시호크호텔과 돔

부족한 인천이 풍부한 자원경관 자체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모습을 그려본다.

해변의 도시개발—어떻게 도시계획화 할 것인가?

후쿠오카의 해변도시와 뉴스타디움인 후쿠오카돔은 '친수성의 고취'를 개발이념으로 인공도시의 무기질성을 극복하려 했고, 수많은 야심적인 실험이 이루어졌다. 대규모 인공해안을 건설, 해안선의 보존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 해안도시에 꾸미진 건물들은 거의 설계경기대회를 통해 엄선된 작품들로, 후쿠오카시의 도시 이미지와 상세한 제한요소들을 제시함으로 전체가 최대한 다양함을 그리고 조화롭게 꾸미고자 하는 슬기로움이 있었다.



시호크호텔의 아트리움



해변도시 신주거건물군



상륙작전기념관에서 본 송도신도시 예정지

다시 기획이 된다면 각 건물마다의 전시물과 다양한 체험 테마들을 피부로 느끼고, 그나마 우리가 준비한 용인에버랜드와 비교하여 부족한 것은 채울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연수신도시의 바탕적 배경을 서해의 밀물, 썰물을 적절한 물관리법에 의해 응용되어졌다면 지금처럼 살인적인(?) 해안도로와 높다란 방파제 웅벽을 만들어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동아매립지 또는 운하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문화적 자원이

현재 인천시에서는 친수여가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항만기능과 도시기능의 부조화를 시정하고 수변지역의 효율적 이용과 종합적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이 확충되기를 기대한다. 흔히 이야기되는 문화의 불모지라는 수치스런 현실도 수변공간을 적극 이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수변공간은 문화활동을 상생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잘 지어진 해양건축은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인천문화의 정체성을 가시적으로 표상할 수 있다. 해양박물관, 수산박물관, 해양환경관, 수족관, 여객터미널 같은 해양관계시설들 뿐 아니라 콘서트홀, 연극 공연장, 현대미술관, 기타 전시장, 기념관 같은 문화예술과 관계된 시설들을 수변에 적극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모든 시설들이 집합적으로 수변에 인상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게 될 때 비로서 인천은 자기 색깔을 지닌 도시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건축가와 계획가, 관료 및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현실—인천의 미래는?

5일동안의 여행으로 일본을 다 안다는 것은 몹시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이번 짧은 일본테마 여행에서 우리를 자극한 느낌으로 다시 인천을 생각해 보았다. 무리함이 없어 보이는 긴 우회로와 좁은 차선, 사람들의 질서외식, 개방적인 사고와 개방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끝까지 유지하는 특유의 상술, 본거지 사람들조차 꼭 들러가게 하는 관광구매력의 창출 솜씨들은 적극 모방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귀결된다.

인천의 숙제와도 같은 자유공원 부근의 중국 인촌은 개항도시였던 모든 나라의 경제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다. 유독 나날이 쇠퇴하여만 가는 인천의 그곳을 향후 21세기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잠재력을 지닌 중국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천을 방문할 때 반드시 들러 갈 수 있도록 끌어들이 수 있는 곳으로 계획, 정비해 보는 것도 인천의 비전있는 계획사업이 아닐까 생각한다.